



삼성전자, STN-LCD용 구동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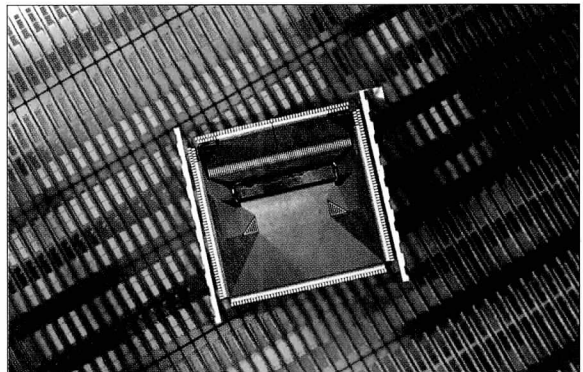
삼성전자가 컬러 휴대폰용 '다용도 LDI' (LCD Driver IC = LCD 구동칩)를 개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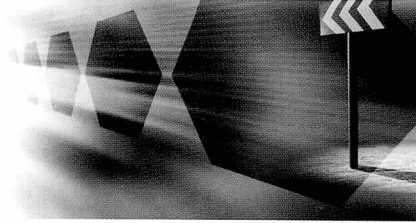
이 제품은 단 하나의 칩으로도 65,000용에서 256용까지 구현 가능하도록 다용도로 설계된 점과 COM Driver와 SEG Driver를 하나의 칩에 내장함으로써 LCD모듈 및 휴대폰의 제조공정을 단순화하여, 가격을 대폭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한번에 여러 줄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MLS (Multi Line Selection) 구동방식을 적용해 데이터 처리속도 4배 향상, 소비전력을 60% 절감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삼성전자의 이번 제품은 177COM 144SEG (COM:Common SEG:Segment / STN모듈 크기단위) 크기의 컬러 STN-LCD용 구동 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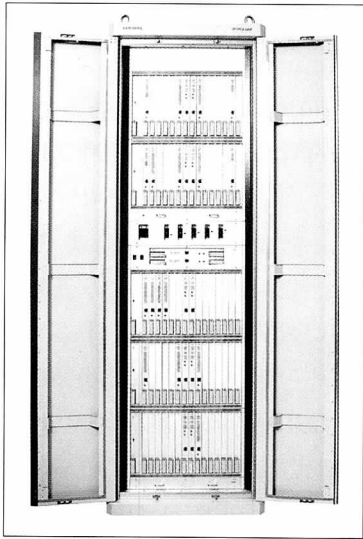
삼성전자는 2003년 약 4억8,000만대의 전체 휴대폰 시장 중 약 37%가 컬러 휴대폰시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보고, 휴대폰의 Main LCD 외 Sub LCD까지 컬러로 대체할 4,000 컬러 1칩 제품 등 다양한 제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이번에 개발한 컬러 STN-LCD용 구동칩을 7월부터 양산, 2003년까지 전체 컬러 LCD 구동칩 시장의 15%를 점유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IP/ATM 교환기 「IAP」



삼성전자는 지난 3월 세계 최초로 무선망과 연동 가능한 최첨단의 통신 시스템인 「IP/ATM 교환기(모델명 : IAP)」의 자체개발에 성공, 본격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의 IP/ATM 교환기 「IAP」는 기존 구내교환기에서 사용되던 아날로그 전화, 디지털 전화, IP폰 뿐 아니라 휴대폰까지 완벽하게 네트워킹 되며, PSTN망, 이동통신망, VoIP망, 전용망 등 모든 통신 환경과의 연동이 원활한 특징을 지닌 교환기다.

삼성전자의 「IAP」는 8개의 분산노드를 이용해 최대 6만 4천명까지 확장할 수 있어 최적의 사무환경에 적합한 시스템이다. 또한, CTI(Computer Telephony Integration, 컴퓨터전화통합),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고객관계관리), 음성인식, UMS(Unified Messaging System, 통합메세징처리시스템) 등의 다양한 솔루션과 서버와의 연동기능이 뛰어나다.

특히,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데이터서비스가 가능하며, 웹을 통한 시스템 통합운영 방식을 적용해, 원격지 관리 및 유지보수가 가능하다.

삼성전자의 「IAP」전용 IP폰 사용자는 자리를 이동할 경우에도 배선이나 번호체계를 변경하는 번거로움 없이 어디든 IP폰만 연결하면 사용 가능하므로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또한, IP폰의 대형 LCD 화면을 통해 시스템의 상황, 발신자 번호 및 축적된 이력정보 뿐 아니라 뉴스, 날씨, 증권시세, 사내공지사항 등의 각종 정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이 제품은 공중 무선망과 연계된 구내 무선망을 구축할 수 있어, 일반 공중망 휴대폰을 구내 무선전화(인포모바일 기능)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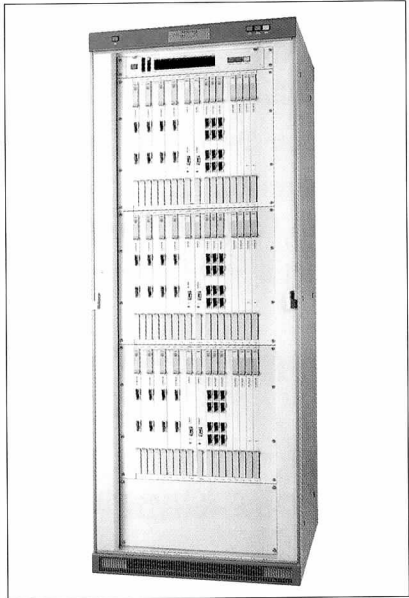


LG전자, 차세대 ATM 광가입자망장치

LG 전자는 ATM 기반의 차세대 광가입자망장치(ATM-PON 모델명:StarDLC-6400)를 개발하고 본격적인 출시에 나섰다.

LG 전자가 출시한 제품은 대용량 중앙노드장치(StarDLC-6410)와 소용량 및 대용량 지역노드장치(StarDLC-6430, StarDLC-6440) 등이며 하나의 지역노드장치 당 96가입자에서 512 가입자까지 수용할 수 있다.

특히 이 장치는 기존 광가입자망에서 주로 쓰이던 Point-to-Point 방식에 비해 망구축 비용이 경제적이며, ATM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광대역서비스가 가능해 음성은 물론, 고품질의 VOD 등 대용량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ATM-PON 은 기술적 구현이 어려워 세계적으로도 후지쯔, 테라웨이브, 인피니온, 루슨트 등 몇몇 업체만이 이 장치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 업체로는 LG전자가 유일하게 개발에 성공했다.

더욱이 LG전자의 제품은 Point-To-Multipoint 방식뿐만 아니라 Point-to-Point 방식에도 쓰일 수 있어 유연한 가입자망 구성이 가능하다.